

# 유엔의 민주화는 시대발전의 절박한 요구

김 창 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뿔럭불가담나라들은 유엔에서 특권을 허용하는 낡은 질서를 없애고 유엔이 세계평화와 정의를 수호하는 국제기구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유엔을 민주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전집》 제92권 371페이지)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전횡과 주권국가들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행위가 극도에 달하고있는 오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로 나서고있다.

이러한 시대적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제사회를 대표하고있는 국제기구인 유엔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하며 시대의 요구와 인류의 기대에 맞게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것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를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와 투쟁하며 평등권 및 자결권원칙에 기초한 국가들사이의 우호와 협조의 발전을 보장하고 인도주의적인 국제문제 등을 해결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유엔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것은 건전한 국제관계발전을 추동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유엔이 창립되어 오늘까지 국제무대에서는 특정국가들의 강권과 전횡으로 하여 유엔헌장에 배치되는 비정상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있다.

특히 새 세기에 들어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유엔헌장에 밝혀져있는 자주권존중과 주권평등,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미국의 세계제패정책을 합리화, 합법화해주는 《결의》들이 날치기로 채택되고있다.

세계의 중요한 문제들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것은 현시기 유엔앞에 나서고있는 중대한 과제이다. 유엔의 기능과 역할을 높인다고 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유엔을 민주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유엔의 민주화는 오늘 시대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유엔의 민주화가 시대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국제사회의 민주화가 현시대의 기본흐름으로 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랭전이 종식됨으로 하여 제2차 세계대전후 40여년동안 지배하여오던 쏘미량국구도는 허물어지고 세계정치세력관계는 재편성되기 시작하였다.

세계제국주의진영내부에서 미국과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서방나라들이 정치, 경제, 군사, 외교의 모든 면에서 미제의 일극화책동에 반기를 들고 점차 독자성을 주장해나섰다. 그리고 쏘련이 붕괴되면서 그 가맹공화국들이 독립하고 독자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한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발전도상나라들은 대국들의 지배권 쟁탈전이 더욱 우심해지는 조건에 맞게 단결과 집단적협조를 강화하면서 지역의 일체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발언권과 지위를 높여나갔다.

이처럼 세계정치세력관계가 급속히 변화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여온 나라와 민족들뿐아니라 지난날 대국들에게 눌리어있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독자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자주시대를 반영한 국제사회의 민주화의 흐름은 더는 되돌려세울수 없는 도도한 흐름으로, 국제관계발전의 중요한 추세로 되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민주화는 오늘의 세계에 부합되는 민주화된 유엔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으며 그것은 시대발전의 변천과정을 놓고볼 때에도 당연한것이다.

유엔의 민주화가 시대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는것은 다음으로 유엔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더우기 특정국가들의 손발이 되어 스스로가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지난 시기 유엔무대에서 나타난 특권과 전횡은 유엔민주화의 필요성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있다. 1950년대 미국은 조선전쟁을 일으키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저들이 써야 할 《전쟁도발자》의 감투를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려고 책동하였으며 《유엔군》의 탈을 쓴 미군과 추종국가군대들을 조선침략전쟁에 끌어들이었다.

냉전시기 여러차례에 걸쳐 감행된 중동전쟁에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침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무대를 리용하여왔다는것은 세계가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새 세기를 전후로 하여 감행된 소말리아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그리고 2003년의 이라크전쟁 등에서 미국을 비롯한 일부 열강들은 유엔무대를 저들의 지배주의적책동과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하였다.

오늘에 와서도 유엔에서 미국의 압력과 추종밑에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문건들이 계속 채택되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문제시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성명》이 발표된것이 그 명백한 증거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추종밑에 유엔력사에 평화적위성발사를 문제시한적이 한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위성발사만을 상정, 취급하고 류레없이 부당한 《의장성명》까지 채택하는 강도적조치를 취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체질적인 거부감을 가지고있는 적대세력들의 풍에 놀아나 우리의 합법적인 평화적위성발사를 문제시하고 《의장성명》까지 채택한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행위인 동시에 국제기구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너절한 행위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을 잃고 반공화국적대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유엔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하늘로 날려보내는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기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날강도적인 조치로 하여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에는 전쟁의 불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있으며 첨예한 대치상태가 지속되고있다.

핵문제를 걸고 벌려온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더는 맥을 추지 못하게 되자 미국은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유엔무대에서 반공화국《인권》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기 시작하였으며 어중이떠중이들을 모아놓고 《북조선인권대회》라는 광대놀음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국회를 발동하여 내정간섭적인 《북조선인권법》까지 채택하여놓고 그에 따라 우리의 제도전복을 위한 《인권》공세의 도수를 체계적으로 높여왔다.

미국은 유엔인권리사회를 조종하여 《북조선인권상황》을 전담한다는 《북조선인권상황조사위원회》까지 날치기로 조작해냈을뿐아니라 날조된 《북조선인권보고서》에 근거하여 《인권결의안》이라는것을 만들어 유엔총회에서 강압통과시키는데으로써 반공화국《인권》공세를 국제적범위로 확대시키려고 책동하여왔다.

사실 미국이 《북조선인권상황조사위원회》라는것을 조작할 때부터 적지 않은 나라들이 그것이 유엔의 사명에 완전히 배치되는것이며 또 현실에도 맞지 않는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 모든것을 깔아뭉개고 《북조선인권상황조사위원회》를 동원하여 우리의 《인권문제》를 걸고들기 위한 모략과 낄조, 사기와 협잡놀음에 열을 올리였다.

미국은 사기와 모략으로 낄조해낸 《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공식 제출하고 그것을 강압통과시키기 위하여 비렬하게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매수와 압력책동에 매달렸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반공화국《인권결의안》에 찬성투표하지 않으면 《경제원조》를 잘라버리겠다느니, 저들의 요구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질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압력을 가하였다. 지어 일부 나라 외무상들을 직접 불러다놓고 재정적후원문제를 걸고 공개적으로 협박하면서 지지표를 늘이려고 발악하였다.

오늘 조선반도의 남쪽에는 유엔활동의 불공정성을 실증해주는 대표적인 산물인 《유엔군사령부》가 반세기이상 존재하고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사실상 유엔의 모자를 쓴 미군사령부로서 이것은 미국의 아시아지배전략실현에 신성한 유엔의 이름이 도용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유엔의 민주화가 실현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결정들이 채택될수 없다. 유엔은 결코 미국과 같은 특정세력의 침략과 지배주의정책에 도용되어야 할 국제기구가 아니다.

유엔이 헌장의 요구에 맞게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자기의 책임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 유엔의 활동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유엔의 민주화가 결여되어있는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

유엔은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수호하는 국제기구이다. 유엔의 활동에서 생명은 공정성을 보장하는것이다.

그러나 유엔은 자기의 헌장과 사명에 맞게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있으며 특히는 일부 대국들의 부당한 행위로 하여 자기 활동에서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있다. 지난 시기는 물론 지금도 유엔에서 소수의 강대국들이 유엔헌장에 배치되게 특권을 행사하며 전횡을 부리고있다. 그런가 하면 발전도상나라들은 유엔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지만 응당한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있으며 그들의 의사가 무시당하고 리익이 침해당하는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유엔이 창립된 후 70년간의 역사적교훈과 현정세는 유엔으로 하여금 하루빨리 민주화를 실현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유엔의 민주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유엔총회의 권능을 강화하는것이다.

유엔성원국전체를 망라하고있는 유엔총회는 그 구성과 성격, 사명을 놓고볼 때 국제사회의 총의를 반영할수 있는 가장 권위있는 기구이다. 반면에 몇몇 나라들로 구성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결코 국제사회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수 없다. 더우기 특정한 국가가 자기의 전략적리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안전보장리사회를 악용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리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심히 떨어지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대다수 유엔성원국들이 유엔총회가 유엔의 활동전반을 주관하는것은 응당하며 특히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평화와 안전에 관한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들도 최종검토할수 있는 권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유엔의 민주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유엔의 주요기관인 안전보장리사회를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하는것이다.

유엔이 창립된 이래 발생한 주요국제문제들과 21세기 10년대의 복잡다단한 국제관계 발전을 주시하여볼 때 유엔의 민주화는 본질에 있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강대국이 약소국들을 지배하던 반세기전의 불평등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는것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구성이며 민주주의가 제일 결여되어있는것 역시 리사회의 절차와 규정이다. 그러므로 유엔을 민주화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요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민주화하는것이며 이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시대적과제로 나서고있다.

우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구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안전보장리사회의 구성은 성원국수를 늘이되 지역별로 동등한 대표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유엔전반을 민주화할수 있는 관건적인 고리로 된다.

여기서는 철저히 발전도상나라들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역별나라수를 고려하여 공정한 지역할당제원칙을 도입하여야 한다.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과 비상임리사국을 포함한 안전보장리사회의 구성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지역, 동서유럽지역에 의석수를 균등하게 할당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안전보장리사회구성을 확대한다고 하여 지난날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여 감행한 범죄행위를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고있는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그의 상임리사국진출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을 받아들이는 경우 그것은 오히려 유엔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온당치 못한 처사로 된다.

또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거부권》제도를 철폐하여야 한다.

《거부권》제도는 유엔을 민주화하는데서 기본장애로 되고있으며 그것은 소수의 독판치기를 조장시키는 령전시대의 유물이다.

현재 《거부권》은 5개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만이 행사하고있다. 소수의 렬강들은 《거부권》제도를 악용하여 저들의 리익만을 추구하고있으며 전횡을 일삼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발전도상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유엔에서 대국들의 특권적지위와 전횡을 허용하지 말것과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거부권》제도를 철폐할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있는것이다.

또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안전보장리사회의 사업을 개선하는데서는 리사회사업의 투명도를 높이며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방법과 절차를 수정완성하는것이 필요하다. 안전보장리사회의 비공식협상에는 당사국을 포함한 유관측을 참가시켜야 하며 비상임리사국들의 련속재선을 반대하고 모든 유엔성원국들이 안전보장리사회에 들어가 책임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유엔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주화될수 있으며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과 세계 진보적나라들은 유엔을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유엔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할뿐아니라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야 한다.